

2022. 4. 7 (목)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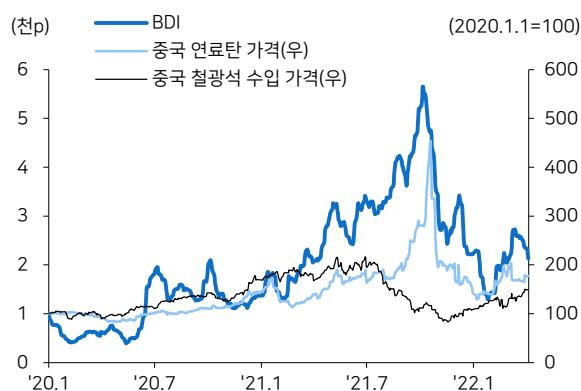
jungha.oh@meritz.co.kr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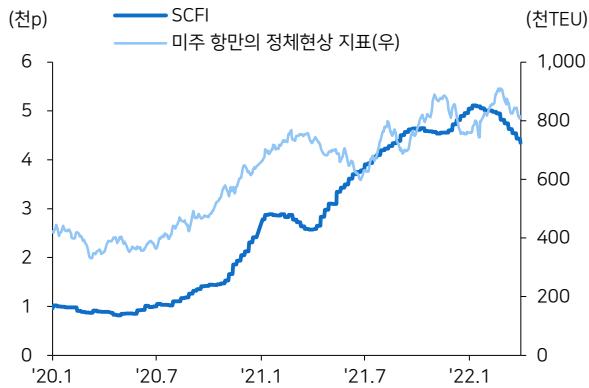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128.0p(-8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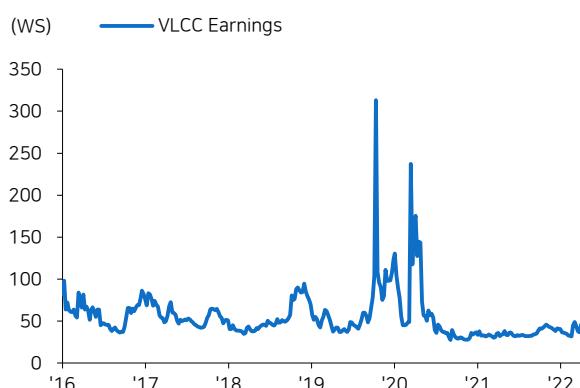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348.7(-85.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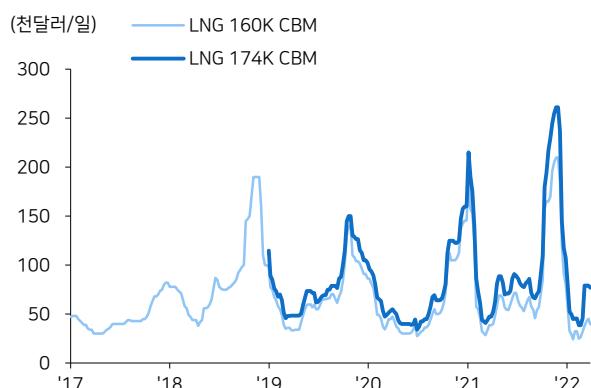
VLCC Spot Rate

45.9(+9.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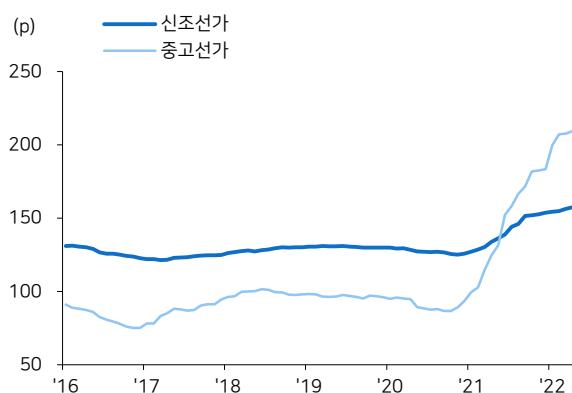
LNG Spot 운임

39.5p(-5.8p WoW)
77.0p(-2.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7.3p(+1.1p WoW)
209.4p(+1.7p WoW)



항공시장 지표

273.3p(-7.2p DoD)
99.7p(-2.8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5월부터 국제선 주 100편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과 합의했다고 보도됨. 2022년 연말까지 COVID-19 이전의 50% 수준으로 국제선 운항 회복을 목표로 함. 국토부는 여객수요를 전세계 항공시장 83%, 아시아시장 40% 수준 회복을 전망함. 오는 5~6월 1단계 계획이 시행되는데, 현재 4월 주 420회 운항에서 5월부터 매월 주 100회씩 증편될 예정임. (매일경제)

영국, 러시아산 석탄 금수·스베르방크 자산동결 추가 제재

영국이 러시아에 5번째 경제제재를 발동해 러시아 최대은행 스베르방크의 자산을 동결하고 2022년말까지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내놓음. 비료와 석유, 천연가스, 트럭, 다이아몬드 등 산업에 종사하는 8명의 올리가르히(신흥재벌)도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석유정제 장비 등의 수출도 금지함. (뉴시스)

IEA "비축유 1억2천만배럴 추가 방출 추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유가 안정을 위해 1.2억배럴의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미국 독자적으로 방출하는 1.2억배럴을 더하면 총 2.4억배럴이 시장에 풀릴 예정임. IEA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은 3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임. (연합뉴스)

상하이항 '병목' 장기화 우려…글로벌 물류대란 '비상'

중국 상하이 봉쇄 장기화 전망이 나오며 국내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됨. VesselsValue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 항만에 대기 중인 선박은 약 300척으로 2021년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함. 방역 강화로 항만 근로자와 트럭 운전사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육로 배송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짐. 중국 물류협회는 상하이항의 물동량이 감소하며 최근 물류비용이 33% 폭등했다고 발표함. (이데일리)

As capesize spot rates sink, futures point to rebound

수요일(6일) Capesize 5TC가 -8.3% 하락하며 대형 벌크선 Spot 운임이 2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FFA 운임은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보도됨. 이는 시장회복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언급됨. 한편, 소형 벌크선 FFA 운임은 현물과 비슷한 수준임. (Tradewinds)

국내 조선, 쾌속질주...1분기 수주 점유율 50%

Clarksons에 따르면 한국이 전세계 선박발주량 323만CGT 중 51%를 수주해 42% 수주한 중국을 따돌리고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됨. 2022년 1분기 전체 수주 실적도 50%로 1위임. 한편, 한국은 1~3월 발주된 대형 컨테이너 중 55%, 대형 LNG선 중 70%를 수주하는 등 주력 선종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였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